

이 주의 투자 포인트 (4월 27일 주)

한층 업그레이드 된 딥시크 모델이 발표된 가운데 미국 빅테크 실적을 통해 AI 경쟁 구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주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한국시간 목요일 새벽으로 예정된 FOMC 회의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며, 단기적으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Capex 확대에 따른 단기 현금흐름 부담과 중장기 성장 기대감 조정 등 빅테크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딥시크, 화웨이 칩 사용한 최고 수준 가성비 모델 발표

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딥시크는 2026년 4월 24일 최신 LLM인 DeepSeek-V4 프리뷰를 공개했으며, 이는 코딩 및 추론 성능에서 글로벌 최상위 수준에 근접한 모델입니다.
- 경쟁 모델 대비 훨씬 낮은 가격 정책을 유지하며, AI 경쟁이 성능 중심에서 비용과 효율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번 모델은 화웨이 Ascend AI 프로세서에 최적화되어 설계된 것이 특징이며, 이는 엔비디아 GPU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입니다.
- 모델과 칩을 동시에 내재화하는 수직 통합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변화의 연장선에 있는 움직임인데, 다만 이러한 흐름은 2025년 초 딥시크 이슈 당시 이미 부각된 바 있어, 이번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화웨이가 중국산 DRAM 기반 자체 HBM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이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딥시크와 같은 저가형 고성능 모델의 등장과 확장 가능성은 글로벌 AI 경쟁을 심화시키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를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밸류체인 내 간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연이은 빅테크 실적 발표

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한국시간 4월 30일 목요일 새벽(오전 5시 이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가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들 네 기업은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핵심 축입니다. 2026년 기준 네 기업의 합산 Capex는 약 6,600억 달러 수준이 예상되며, 이는 AI 인프라 및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입니다.
- AI 투자 수익화에 대한 확인이 공통적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각 사의 핵심 실적 관전포인트

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알파벳 (1M 주가 수익률 16%): AI 수직계열화 진척과 TPU 중심의 자체 칩 전략, 그리고 브로드컴 및 Marvell과의 협업 구조, 엔터프라이즈(B2B) 시장 확장 전략
- 마이크로소프트 (1M 주가 수익률 13%): 그간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자체 칩 개발 혹은 자체 AI 모델 개발 분야에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졌으나, 강세 기대되었던 기업용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에이전트 AI 출현 이후 경쟁력이 지속 확보 전략
- 아마존 (1M 주가 수익률 27%): 자체 칩 진척도, AWS 시장 점유율 추이에 주목. 최근 AWS-엔트로픽의 장기 계약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만큼, 추가 언급이나 유사 파트너십 가능할지 여부
- 메타 (1M 주가 수익률 13%): AI 광고 시대에 디지털 광고 매출 리더 (vs. 알파벳)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 있지만 소셜미디어 규제환경은 여전히 리스크 존재. 과거 AI Capex 가이던스 상향에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경험이 있어 유의할 필요 있음

Compliance Note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